# 키시오 스가
# Kishio Suga

## The Artist Kishio Suga

키시오 스가 (Kishio Suga, 1944)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일본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모노하의 대표작가중 하나다. 모노하 작가들은 공간에 있는 물질 자체의 존재 및 자연, 물성 및 개인 사이의 실존적 연결을 탐구하면서 전통적인 회화의 개념에 도전하고, 이를 통하여 관람객에게 주위의 세계를 관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스가의 예술적 경력은 격변하는 일본의 문화 및 정치적 상황과 함께 일본의 전통 교육 시스템에 대한 항의와 일본 사회에 대한 미국의 간섭에 반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운동이다. 1964 년부터 1968 년까지 도쿄 다마 미술 대학에서 회화를 공부하면서, 새로운 예술적 언어의 개발을 옹호했던 예술가와 교수들에 의해 수업이 진행되었다. 러시아 구성주의(Constructivism)와 Maurice Merleau-Ponty (1908-1961)와 Claude Levi-Strauss (1908-2009)와 같은 유럽 철학자들에 영향을 받은 사이토 요시시게 교수 (1904-2001)와 미국인 예술가 도널드 저드 (Donald Judd, 1928-1994) 에게서도 영항을 받게 되었다. 당시, 일본은 유행하기 시작한 유럽 중심주의와 미국 근대주의 이론에서 벗어난 현대 미술에 대한 접근을 장려하기 위해 상황이었다. 1968 년부터 1969 년까지 스가는 도쿄에 작업실이 이었던 미국작가 샘 프란시스 (1923-1994)의 어시스트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도쿄에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첫 번째 작품에서의 밝고 선명한 색상이 특징은 프랜시스 스타일의 영향력으로 보여진다.

타마 대학에서 스가 (Suga)는 미니멀리스트, 다다 (Dada), 초현실주의자 (Superrealist)의 형식을 결합한 작가이자 교수인 지로 타카마츠 (Jir☒ Takamatsu, 1936-1998) 아래서 수학했다.  타카마츠는 사진, 조각, 회화 및 공연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예술의 철학적 및 물질적 기원과 지각과 존재의 해석을 연구하여 원근법, 빛과 그림자로 재생되는 광학 및 환상 작품을 했다. Mono-ha 예술가 (타마 미술 대학에 다녔던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지는 타카마츠 또한 스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Kishio Suga는 1968년 도쿄의 Tsubaki Kindai Gallery에서 열린 첫 개인전에서 자신의 무게로 상자가 붕괴 된 듯 한 착각을 불러일으킨 독립 구조의 목조 구조인 Space Transformation (1968) 을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스가는 자연, 표현 및 인지의 개념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그의 Latent Infintiy 에세이를 통해 : "표현이란 무엇인가? 1960 년대와 1970 년대 초반, 내 마음이 밤낮으로 그 질문에 매달렸다. 표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 나는 작품에 대한 표현, 그 내용의 역할, 관람자의 의식이 어떻게 내용에 관여하지는 지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했다." 스가가 연구한 사상가 중에는 인물 쟝 보들리야드 (1929-2007), 질 들뢰즈 (Gilles Deleuze, 1925-1995)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교토 철학 학교 설립자인 니시다 키타로 (Kitaro Nishida, 1870-1945), 불교 승려 그리고 시간, 공간 및 물질의 상호 의존성에 관한 이론의 불교승려이며 철학자인 나가르주나 (Nagarjuna c.150-c.250 AD)가  스가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부분들이 스가를 그의 예술에서 일루전의 양상들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리고 그는 야외 및 실내 환경에서 물질 간의 상호 관계를 실험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그는 공간 변형 (Space Transformation)을 발표했으며 또한 Layered Space를 제작했다. Layered Space에서는  나무 조각, 면화, 재, 토양 및 플라스틱 층이 들어있는 투명 아크릴박스 제작을 위해 자연과 산업공정 중에 나온 재료들을 가져다 사용했다.

목재, 석재, 판금, 파이프, 시멘트 블록, 파라핀 블록 같은 단순한 재료에 대한 물질과 주변 공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Mono-ha 아티스트가 제작 한 작품의 핵심이다. 1968 년부터 1972 년까지는 스가, 에노 쿠라 코지, 하라구치 노리 유키, 혼다 혼고, 코시미즈 스스무, 이우환, 요시 카츠로 등이 포함 된 그룹으로 활동했다. "School of things"라는 뜻의 모노하의 흐름은

건축물과 외부 공간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수단으로서 일시적인 물질 배열을 제시한다. 예술가들은 개입을 최소화하고 작품의 요소 또는 설정을 간단한 행동으로 변경하고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창조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일부 예술 사학자들에 따르면, 노부오 세키네 (Nobuo Sekine) (1942)의 '위상 - 대지 (Phase-Mother Earth, 1968)'의 창조를 모노하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고베에 있는 수마 리큐 공원(Suma Rikyu Park)에서 실현 된 현장 전용 설치물은 지면에 원통형 구멍을 파고 지구의 인접한 원통이 정확히 같은 비율로 구성되어있었다.

이 작품을 그의 초점으로 삼고, 그의 독창적 인 에세이인 Encounter in Search에서 한국의 작가 Lee Ufan (1963)은 Mono-ha의 연구와 실습에 근본적인 주제와 개념을 이론화했다. 이 텍스트는 1970 년 Yoshishige Sait⊠가 1948 년에 창립 한 일본 최초의 현대 미술 잡지 중 하나 인 "Bijutsutech⊠"가 출판했다. 같이 발행된  Kishio Suga와 그 그룹의 다른 멤버들 사이의 대화는 Mono-ha의 주요 아이디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최초의 텍스트로 여겨지는 New World를 연다. 이 기간에 대해 질문을 받은 스가 (Suga)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는 수많은 불가사의한 것들과 현상이 존재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작업은 이러한 불확실한 요소들과 불분명한 존재들을 관여하고 개입시키는 데 있다.따라서 모노하 (mono-ha)는 감성의 차이, 즉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에 관심이 있다 "고 말했다.

1969 년과 1972 년 사이에 출판 된 여러 텍스트에서 스가는 자신의 예술적 제작에 있어 물질적 형태를 부여한 주제와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예술가에 따르면, 작품의 모든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주변 공간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는 문맥에 따라 다르므로 각 설치는 창작 순간과 공간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그는 "상황"또는 "상태"를 의미하는 요각처럼 물질과 물질의 상호 연결된 상태를 가리킨다. 스가 (Suga)는 보드와 나무 조각, 구리 조각, 돌, 돌 조각 또는 시멘트 블록을 다양한 임시 조합으로 배치하여 물리적 측면, 상호 의존 관계 및 주변 환경과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예술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나는 어떤 것의 한계를 창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존재할 때 최적의 위치를 결정하는 상황에 의해 창조한다."

예를 들어, 1972 년 도쿄의 Satou Gallery에서 발표 된 "폐기 된 주문 (H⊠chiritsu)"의 사례에서 그는 나무판자를 모래 바닥 위에 수평으로 그 옆에 놓고 갤러리 문; 바닥의 꼭대기에는 돌과 3 개의 나무판자가 불안정한 내부 벽에 연결되어있었다. 설치 과정에서 그의 또 다른 기본 개념, 즉 "릴리스"또는 "포기"를 의미하는 h⊠chi가 표시된다. 스가 (Suga)는 어떤 방식으로든 변경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전시 공간에 전시하고자하며 예술적 또는 언어적으로 제한 할 수 있는 기존의 의미를 벗어났다. 스가는 교토 국립 현대 미술관에서 1970 년 "현대 미술의 동향" 전시회를 위해 제작 한 무한 상황 I (창)에서 미술관 창문의 열린 프레임 안에 대각선으로 나무 가지들을 배치했다. 결과적인 구조에서 재료는 윈도우 프레임을 기능에서 분리하고 주변 요소에 대한 경계 역할을 부여하는 "해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야외 활동의 장은 도시의 맥락을 불문하고 스가의 작품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다. 1971 년 우베 미술관에서 열린「제 4 회 현대 일본 조각전 : 강화 플라스틱을 소재로 한 조각과 조각상」에서는 유리 섬유 매트에 20 개의 돌이 균형을 이루는 상황의 법칙 (Law of Situation) 호수 표면에 오래 떠있는; 돌의 전체 무게로 인해 매트는 물 표면 아래에 약간 내려앉았다. 따라서 물은 두 물질 사이에서 중개하며 상호 의존성을 나타내며 외력으로 작업을 활성화합니다. 1969 년부터 1974 년까지의 "현장 조사"라고 불리는 스가의 도시 풍경에 대한 개입은 그가 자신의 작업장에서 사용한 것들이며, 작가는 영화에 일시적인 "상황"을 문서화하여 지식 상황 (1970). 도쿄의 주거 거리를 따라 흐르는 물줄기는 도로가 2 개로 나뉘어 있다는 인상을 준다.

1970 년대 후반부터 스가는 바닥을 벽이나 천장에 연결하여 전시 공간과 건축 요소 간의 관계를 수립하고 바닥에 연결된 물체를 배열하는 일련의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 이 구성의 기본은 "필드"를 정의하는 아이디어 였다. 이 영역은 설정의 모든 고유 한 특성으로 강조된 영역으로, 재료의 존재로 인해 뷰어에게 고유 한 공간 컨텍스트를 고안했다. 1978 년 Suga 는 K⊠ji Enokura ( 1942-1995)와 함께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일본을 대표하도록 초청받았다. 이 전시에서 스가는 천장을 바닥에 연결하기 위해 두 개로 톱질 한 나무 가지가 수직과 수평으로 배열 된 전체로서의 측면을 제시했다. 중력에 의해 서로를 지지하는 구조물의 불안정성을 나타  내기 위한 장치로 상호 연결 요소의 "장 (field)"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공간은 추상적인 의미를 가정하는 기능적 특성을 박탈했다.

1980 년대 스가는 "경계"와 "주변"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작품을 발전 시켜나갔고, 주변 공간과의 관계를 밝혀낸 작품을 만들었다. 큐레이터이자 미술 사학자인 히토시 데하라 (Dehara Hitoshi Dehara)가 "자체 포함 된 분야"라고 불렀던 이 작품은 세팅과 작품 자체 사이의 "경계"를 드러내고 외부 한계를 정의했다. 나는 1985년 설치작인 Supporting Avoid 작품에서 스가는 놋쇠 판으로 원형 구조를 만들었고 목재와 돌을 금속 벽에 기대어서 그 윤곽과 틀을 강조했다.

지난 20 년 동안 키시오 스가 (Kishio Suga)는 모노하의 철학과 관습을 꾸준히 발전시켜 온 유일한 멤버이다. 1980 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일본과 국제적인 미술계에서 1997-1998년 일본에서 개최 된 대규모 여행 회고전에서 확고한 입지로 스가의 작품이 점점 더 주목을 받았다. 일본 밖에서는 그의 작품이 1986 년 파리의 Centre Georges Pompidou에서 열린 "Japon des avant grards : 1910-1970"과 1994 년에 발표 된 "1945 년 이후의 일본 미술 : 하늘에 대한 비명"과 같은 단체전에서 전시되었습니다.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및 기타 기관. 스가에 대한 관심은 런던의 테이트 컬렉션 (Tate Collection)과 구겐하임 아부다비 (Guggenheim Abu Dhabi)와 같은 박물관 소장품에 그의 작품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난 10 년 동안 더욱 분명 해졌다.

주요전시

Kishio Suga (1944, Morioka, Japan)는 일본의 이토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는 최근 국제 주요 개인전시회를 개최했다 : 도쿄 현대 미술관 (2015); Long Museum, 상하이 (2015); Jeuich Museum, 뉴욕 (2014); Punta della Dogana, 베니스 (2013); Wave house, 달라스 (2013); 뉴욕 근대 미술관 (2012) 등이 있다. 2000년 스가는 제 3 회 광주 비엔날레, 1978 년에는 38 번째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일본을 대표작가로 참가했다. 2016 년에 스코틀랜드 국립 현대 미술관 (에딘버러)과 Dia : Chelsea (뉴욕)의 2 개의 다른 중요한 기관이 Kishio Suga의 오마주 전시를 선보인다.